

# 경북도, 낙동정맥 등 동해안 일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나서

포항·경주·영덕·울진 거처 형성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서 추진  
도, 내년 6월 환경부에 신청서 제출 유네스코 지정까지 4년정도 예상



동해안 지질공원 명소의 하나인 울진 왕피천.

경북도가 동해안 일대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해안 4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해 조성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2017년에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바 있으며 전체 면적 2261km<sup>2</sup>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기존의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처럼 규제가 아닌 지역주민과 탐방객에 대한 교육으로 자연에 대한 보전 가치를 일깨워 자발적인 보전을 유도하는 지질공원은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장려하면서 최근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도청에서 관련 시군들과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의회'를

열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경북도는 인증 추진을 총괄하고 관련 예산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군들은 사무국 운영 지원과 주민 협력사업 발굴, 안내판과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에 주력하게 된다.

관련 신청서 작성과 실질적인 인증 절차의 수행은 동해안지질공원사무국이 전담하게 된다.

경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는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 관문으로 환경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지정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신청서를 내년 6월말까지 환경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인증 후보지로 지정받으면 본격적인 유네스코 신청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023년 유네스코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듬해인 2024년 상반기에 서류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같은 해 하반기에 예비 인증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최종 인증여부는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사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인증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최종 인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이 국내외 관광객 증가를 가져와 동해안권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동(경북)=김귀열 기자 gokb6830112@metroseoul.co.kr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 '폭염 대비' 농작물·가축 관리 총력전

영양 농기센터, 현장 기술지원

염피해 최소화해 나서고 있다.

최근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폭염 대응 농작물, 가축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폭염대비 농작물, 가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7월 19일부터 8월 폭염 종료 시까지 전 직원이 6개 읍면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벼, 밭작물, 채소, 과수, 축산 등 품목별 사전, 사후관리대책과 폭염대응 농작물·가축 등 안전관리요령, 농작물 재해예방 관리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상 및 농작물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름철 농작물 폭

염피해 최소화해 나서고 있다. 아울러 온열질환 40%는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장 더운 낮 시간대 작업 중단 등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과 안전 관리를 위한 농업인 건강장해 및 대처요령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폭염대비 농작물, 가축 등 농가 피해 최소화해 노력해 줄 것과 특히 고온기 농약살포 및 하우스 작업 등으로 안전사고(열사병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침, 저녁 시원한 시간대 농작업을 실시하여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코로나19 위기... 화순군 방문 자제를"

화순군수, SNS서 향우들에 전달 "부모님 안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구충곤 화순군수가 향우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구충곤 군수는 주말을 앞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향우들에게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지금, 사적 모임과 지역 간 이동량을 줄이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양상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라며 "20%대에 머물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까지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향우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한 것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



고향방문 자제 호소문 발표하는 구충곤 군수.

계 시행, 휴가철과 방학철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이른바 '풍선희'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최근 일주일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증가했다.

구 군수는 "화순은 광주와 인접해 있고 외지 방문객이 많아 늘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며 "고향 방문 자제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은)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수도권을 방문하신 분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면서 "우리 군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이달 초부터 매일 2차례 마을방송을 통해 수도권 자녀와 친지에게 휴가철 고향 방문 자제 요청하기 수도권 및 다른 지역 방문 자제하기 수도권 방문자 진단 검사하기 사소한 의심 증상에도 진단 검사하기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화순(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농가교육 나서

잔류농약 성분검사 확대 등 대책담아 교육자료 제작 2.8만 농가에 배포

전라남도도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친환경 인증 취소 제로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성분검사 확대 등 안전성 관리 5대 강화책에 대한 농가교육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해 2만 8000여 친환경농가

에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통합메시징 시스템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비대면 안전성 관리 강화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자료에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성분검사 확대(320→511성분)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전신고 안내 ▲농약 살포 인증 취소 농가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외 ▲농약 혼용 등 인증 취소 원인 방제·자재업체 사업 참여 영구제한 ▲최근 5년간 농약 검출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의 정보가 담겼다.

전남도는 2만 8000여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해 병해충 방제 시기에 공동방제 사전신고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이행토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12일까지 4일간 여수 등 136개 친환경농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 사전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단지는 이달 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약 사용 의심 4개 단지는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영양 청기면 검산성 일대 해바라기 만개

라디오서 소개... 주말여행지 각광

영양군 청기면(면장 박경해)에 위치한 의병장 벽산 김도현 선생이 축조한 검산성 일대에 노닐자리사업 환경개선 및 문화재주변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해바라기가 만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청기면 상청리에 위치한 검산성은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동한 벽산 김도현(金道鉉) 선생이 사재를 털어 쌓은 산성으로, 1985년 10월 1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쪽 200m 가량과 남쪽 일부가 남아 있다.

백여 년의 시간동안 그 자리에 남아 우리에게 항일정신을 일깨워주던 검산

성이 요즘 해바라기 덕분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으며 라디오 방송(KBS 제1라디오, 즐거운 라디오 여기는 안동입니다)에서 주말여행지로 소개되면서 검산성 뿐만 아니라 성(城) 아래 마을에 위치한 벽산 생가와 송조고택, 청계정 등 고택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명소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활짝 핀 해바라기가 마치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의병장 벽산 김도현 선생의 항일정신을 보는 것 같다"고 전하며, 아울러 "검산성의 아름다운 해바라기 정원에서 과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낼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190개 전달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도창, 김길동)는 23일 경북공동모금회로부터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1세대 10만원 상당) 190개를 배분받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읍면협의체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고립, 생계 불안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이웃 190세대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집안에 오래 머무는 중증장애인이나 홀몸어르신들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선풍기, 여름이불과 함께 영양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지원한다.

오도창 공공위원장은 "올해의 폭염은 유난히 길어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기에 코로나19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웃들에게 시원한 바람이 더 강하고, 더 멀리 퍼져 나가 올해 여름을 좀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 곁에서 살피는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